

SKT, AI·ICT 분야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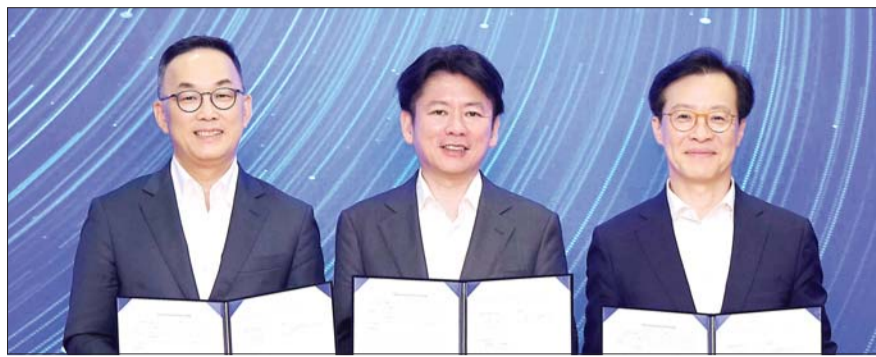
日 통신사 소프트뱅크 업무협약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

SK텔레콤이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와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표준화 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SK텔레콤은 소프트뱅크·사회적가치 연구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에 겐다 야스유키 소프트뱅크 코퍼레이트 총괄,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그룹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협력은 지난 2024년 사회적 가치 측정 워크숍을 열고 사례를 발표하며 처음 시작됐다. 특히 SK텔레콤이 측정할 지표와



9일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 겐다 야스유키 소프트뱅크 코퍼레이트 총괄,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소프트뱅크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할 결과를 공시하고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3사는 그동안 축적한 사회적 가치 측정 역량을 바탕으로 AI·ICT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글로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표준 방

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측정 체계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회사는 2018년부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케어, 재난 대응, 범죄 피해 예방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AI·ICT 기반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 발굴하고, 2021년부터는 성과 공개의 수준을 높여 세부 지표들의 측정 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은 “AI가 만드는 사회적 효용과 해결 과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 측정 표준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배달플랫폼 3사 ‘동반성장 시범평가’ 참여

동반성장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민),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신한은행(뽕겨요)과 9일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배달의민족 김중현 전무, 쿠팡이츠 정우연 대외정책실장, 동반성장위원회 이달곤 위원장, 뽕겨요 전성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예방 팔 걷어

소진공은 지난 8일 소방청과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기보,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8일 경기 부천시 웹툰융합센터에서 동서대학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제작·사업화 전 주기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보 천창호 이사(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동아쓰시오그룹,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동아쓰시오그룹은 지난 8일 경북 상주 낙서초등학교에서 신입사원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입사원 70여 명이 참가해 낙서초등학교의 복도와 계단을 재단장하며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동심의 공간을 꾸몄다. /동아쓰시오그룹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초광역산업협력과장 이주노

부음 ▲이연숙(전 정부제2장관·전 국회의원·전 여성단체협의회장)씨 별세, 이승연(이승연 몬테소리 영어교육연구소장)·지연(한양여자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김규동씨, 정종원씨 빙모상 = 9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1일. 02-2290-9442

▲최정자씨 별세, 안상준(프로야구 울산 웨일즈 코치)씨 모친상 = 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1일. 051-636-4444

송미령 장관, 몽골 ‘K-푸드 체험행사’ 참여

현지마케팅 통해 수출 확대 나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몽골을 찾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마케팅 행보에 직접 나섰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은 지난 8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K-Fresh(신선식품) 체험행사 및 K-편의점 간편식 시식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송 장관은 8일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를 앞두고 현지 소비자 30여 명을 초청했다. 행사에서 한우와 한돈, 닭고기, 쌀, 채소, 파프리카, 버섯 등을 싹장과 함께 선보이고 후식으로 수박 화채를 제공했다.

송 장관은 또 한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문 판매장인 ‘K-Fresh Zone’을 방문해 과일과 채소, 육류 등의 판매 현황도 점검했다. 해당 매장은 한국에서 주 1회 항공편으로 신선식품을 직송받아 판매하고 있다. 높은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내년 중 2호점 개점을 추진 중이다.

그는 몽골시장 관련해 “K-Fresh부터 K-간편식까지 다양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전략 품목 개발과 인증·통관, 물류, 유통망 개척,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포스코-KB국민은행,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

철강공급망 내 고객사 유동성 지원

포스코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철강공급망 내 고객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도입한다. 양사는 공급망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KB국민은행과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와 고객사, KB국민은행이 연계된 금융 지원 구조가 마련된다. KB국민은행은 판매대금 회수를 전담하고, 고객사에는 기업 대출 지원

과 ESG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연내 공식 오픈을 목표로 포스코의 고객 플랫폼 ‘마이 포스코(My POS CO)’에 KB국민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직접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사는 플랫폼 안에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양사는 가산금리를 최소화한 업계 최저 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철강 경기 불황 속 고객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카카오, ‘단골가게’ 론칭... 강원지역 공모

지역 소상공인 브랜드 성장 지원

카카오는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으로 ‘단골가게’를 새롭게 론칭하고 강원 지역 식음료(F&B) 업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단골가게’는 지역에서 사랑받는 가게

가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강원도 내 F&B 업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8일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매달당 최대 1억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8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항공엔진 상생협력 MOU 협약식’에 참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제조 협력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박차

협력사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항공엔진 개발을 앞두고 항공엔진 제조 협력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힌다. 소재·부품부터 조립·시험까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항공엔진 특성에 맞춰 기술개발과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 경남 창원 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항공엔진 제조 협력업체 및 유관 기관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항공엔진 제조 분야 핵심 협력사 49곳과 유관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는 협력사 맞춤형 기술개발과 직무교육, 연구개발(R&D) 비용 및 인프라 지원, 거래환경 개선 등이 담겼

다. 항공엔진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사 역할을 높이고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항공엔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항공엔진 소재·부품 분야 MOU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과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첨단항공엔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항공엔진 개발 사업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김준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수사업 총괄은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국산 항공엔진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오늘의 날씨

7월 10일 (금)
음력: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3~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연천 22/28, 동두천 23/29, 가평 22/28, 파주 23/28, 서울 23/29, 양평 23/29, 인천 24/29, 수원 24/29, 용인 24/29, 평택 23/31, 백령도 22/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